

총서형식의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

박사 부교수 정 철 호

1. 서론

지난 시기 수령형상창조원리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수령형상문학》(《주체적문예리론연구》 11. 윤기덕 문예출판사, 1991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을 해설론증하였다.

《소설창작과 구성》(《주체적문예리론연구》 9. 장희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9(2000)년)에서는 일반소설에서 구성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한개 장에서 수령형상소설의 구성상특성을 연구하였다.

《주체문학의 재보》(장희숙 문예출판사, 1995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소설작품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예론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김하명평론집 《새문학건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년), 《우리 문학예술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모실데 대한 당의 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방연승평론집 《인간학탐구》 문예출판사, 1990년), 평론 《전설은 계속된다》[김성우 《조선문학》 주체88(1999)년 4호], 《위대한 령도밑에 장편소설 〈1932년〉이 이룩한 수령형상창조의 빛나는 성과》[방형찬 《조선문학》 주체92(2003)년 12호]를 비롯하여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해설론증하고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많은 문예론설, 평론들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리론을 소설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문제들은 적지 않게 연구되었지만 수령형상소설의 대표적형태인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것은 없었다.

수령형상작품에는 고유한 생리가 있다.

론문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수령형상창조리론에 기초하여 일반장편소설의 창작원리에 부합되면서도 수령형상의 고유한 생리를 구현함으로써 수령의 탁월한 위인상을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는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을 실천적견지에서 해설론증하려고 한다.

2. 본론

수령의 령도밑에 힘있게 전진하는 장엄한 력사적진군의 시대상이 생동하게 비친 화폭의 창조로 수령의 위인상을 최고의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 된다.

수령형상장편소설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전진과정속에서 발현되는

수령의 비범한 위인상을 대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가장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그려낼수 있는 문학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장편소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내용을 갖춘 총서형식으로 창조되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을 창작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18페이지)

지나온 문학사의 갈피마다에는 총서형식으로 장편소설을 창작하여 당대의 사회현실을 폭넓게 반영한 실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창조발전되여온 총서형식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총서형식의 본질적특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이라는데 있다.

수령의 형상을 중심에 모신 우리의 총서형식은 수령의 혁명력사를 부분적으로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본질적이며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사변,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령의 혁명생애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한다.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우리의 총서형식은 이전의 총서형식들과는 다른 고유한 면모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총서형식의 수령형상장편소설들이 그 호상관계에서 통일성과 함께 독자성을 가진다는것이다.

통일성을 가진다고 할 때에는 수령의 위인상에 대한 형상이 수령의 혁명력사에 대한 전일적인 형상속에 통일되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하여 총서형식의 수령형상장편소설들에서 수령의 혁명력사는 개개의 부분들이 아니라 전일적인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지게 되며 매 작품들은 수령의 혁명활동을 단계별로 보여주면서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게 된다.

수령형상장편소설들이 호상 독자성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매 작품이 독자적인 형상과제와 구조를 가진다는것이다. 이것은 매 작품들이 수령의 혁명활동력사의 한부분을 포괄하는 자기의 고유한 형상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수령형상과제를 해명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총서형식은 수령의 혁명력사에 대한 전기적, 실화적형상이 아니라 철저히 수령형상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작품으로서 수령의 혁명활동을 단계별로, 일정한 력사적사변을 중심으로 형상하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발현되는 수령의 위인상을 특색있게 해명한 수령형상장편소설들을 포괄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탁월한 위인상을 형상하는 모든 수령형상장편소설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의 체계속에서 창작출판되면서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한 명작, 력작들을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들어선 오늘 수령형상장편소설창작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사회발전의 역사적단계, 해당 시대가 제기하는 조국과 혁명, 인민대중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내세우고 수령에 의한 그 해결과정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수령의 령도밑에 새롭고도 힘있게 전진하는 해당 역사적시대의 본질을 밝히는 소설형태라는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수령형상장편소설이 수령의 위인상발현과 그에 대한 칭송의 시대적화폭을 펼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시대를 창조한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주적인 운명개척을 위한 거창한 역사적운동을 벌어나갈수 있다. 새시대의 창조자, 령도자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해당 시대가 비친 불멸의 화폭속에서 인간학적으로 형상하는 문학형태가 바로 수령형상장편소설인것이다.

우선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해당 역사적시대에서 인민대중의 운명문제를 수령의 기본형상과제로 제기하고 해명한다.

이것은 일반장편소설과 다른 수령형상장편소설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일반장편소설에서도 인간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다. 그러나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의 인간문제는 그 어떤 개별적인 인간의 운명문제가 아니라 해당 시대의 인민대중 전체의 운명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해명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봄의 서곡》(백남룡, 2008)은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강국의 봄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폭넓고도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제기한 주제는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의 봄을 맞이할수 있었던 힘의 원천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난관을 이겨내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이기 전에 우리 인민이 자기의 운명으로, 신념으로 간직한 사회주의를 고수하는가 마는가 하는 민족전체의 운명적인 문제이다.

또한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해당 시대가 안고있는 인민의 운명문제를 제기한데 기초하여 수령에 의한 인민의 운명문제의 해결과정을 폭넓고도 깊이있게 형상한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인민대중의 운명문제해결의 근본방도가 체현된 수령의 혁명사상이 깊이있게 반영되며 수령의 혁명령도과정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강조된다.

이와 함께 독창적인 혁명리론, 령도방법을 창시하고 발전풍부화시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투쟁과정에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어나가는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이 생동하고도 깊이있는 형상속에 창조된다. 이것은 개별적인 인물들의 운명적인 곡절과 그 전환과정을 통하여 인간문제의 해결과정을 보여주는 일반장편소설과는 비할바없는 형상의 폭과 심도속에서 이루어진다.

장편소설 《봄의 서곡》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폭넓은 시대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시련의 광풍이 이 땅을 얼굴수록 더욱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믿음으로 강국의 봄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경제는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마음속에는 봄을 안고 살아야 동면에서 일떠설수 있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불굴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축산실태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낸 축산관리국장 차원중에 대하여 그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솔직한 사람이며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말로만 끝까지 당을 받들고 순직하겠다는 일군들보다는 훨씬 량심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신다.

그리고 도당책임비서(당시) 라충연의 결단력있고 완강한 사업기풍을 대견해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인정깊게 대하지 못하는 결함을 스쳐보내지 않으시고 그가 일판을 벌리기 전에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당일군이 되도록 이끌어주신다.

작품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보라치는 령길에서 상업부국장 송봉숙을 만나주시는 장면은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장군님께서서는 송봉숙이 곡산공장을 돌릴 강냉이때문에 솟마대를 메고 고생하는것을 가슴아파하시며 목탄차가 발동이 걸리는가를 보고 가겠다고, 내가 간 다음에 발동이 걸리지 않으면 이 밤중에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며 눈보라속에 그냥 서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속에서 일군들은 투쟁의 기수로 성장하며 인민들은 락원의 길을 기어이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간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박차고 사회주의강국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에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불굴의 신념과 비범한 예지로 헤쳐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과정을 집중적으로 형상함으로써 고난의 천리를 행복의 만리로 이어주신 위대한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길이가 아니라 시대전반을 특징지을수 있는 인민대중의 운명문제를 포착하고 시대적인 폭과 깊이에서 해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형상장편소설의 소재로는 물론 짧은 시간적길이를 가진 생활도 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시간적인 길이 그자체가 아니라 시대의 본질을 결정하는 수령형상과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해명하는가에 따라 수령형상장편소설의 사상예술적가치가 평가되는것이다.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은 다음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시대의 기본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폭넓고도 심원한 인간관계가 설정된다는데 있다. 이것은 수령형상장편소설창작의 형상적인 폭과 깊이에 관한 문제이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과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혁명투쟁에서 기본역할을 하는 계급과 계층의 인물들, 시대발전에 영향을 미친 각이한 인물들과의 호상관계가 인간학적으로 맺어진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우선 수령과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거창한 혁명투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급과 계층의 인물들과의 호상관계가 기본인물관계선으로 맺어지고 심화된다.

혁명의 전진과정에 수령과 등장인물들사이에는 실로 다양한 관계가 맺어진다. 하지만 현실에 있는 이러한 관계들을 그대로 옮겨놓는것이 곧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로 되는것은 아니다.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수령형상과제를 중심에 놓고 맺어지고 심화되어나가는 관계이다.

수령형상과제는 인민대중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문제인것으로 하여 일반소설

에서의 인간문제와는 다른 폭과 깊이를 가진다. 바로 이러한 운명문제가 체현되어있는 것으로 하여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령과 인민대중사이의 운명적인 관계로 된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수령과 기본인물들의 관계속에서 운명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정속에서 개인적인 인간문제의 범위를 초월하여 인민대중이 안고있는 근본적인 운명문제를 포착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는 수령의 위대한 품모가 부각된다.

기본인물관계선들에서 제기되는 인간문제들은 수령과 등장인물들사이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것으로 전개되지만 총적으로는 인민대중의 운명적인 문제로 심화해결된다.

수령과 등장인물들사이에 맺어지는 기본인물관계를 통하여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폭넓은 형상과 함께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이 깊이있게 전개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기폭의 붓》(박태수, 주유훈, 2019)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야금전문가 조룡우, 미생물학연구소 실장 유숙근, 의학박사 유진홍과의 관계를 기본인물관계선으로 하고있다.

작품에 설정된 기본인물관계선들은 다같이 우리 지식인들의 심장속에 주체의 념을 심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부각시키는데서 독자적인 몫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야금전문가 조룡우사이의 운명적인 관계는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쳐다볼줄만 아는 사대주의사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채 좌왕우왕하던 지식인들을 한품에 안아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존엄높은 지식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부각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유숙근사이의 관계는 우리 지식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세계를 굳게 믿어주시고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막아주시며 그들의 마음속 그늘조차 깡그리 가셔주시여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불멸의 위인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유진홍사이의 관계는 일제시대의 잔재에 포로되어 황당한 주장까지 하면서 천리마시대의 벽찬 흐름을 외면하고있던 일부 과학자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길에 삶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는 뜨거운 믿음과 헌신의 세계에 대한 감명깊은 화폭창조에 이바지하고있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또한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투쟁의 력사적시대를 폭넓고도 깊이있게 반영하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인물들의 호상관계가 맺어지고 심화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활동영역은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투쟁과 생활영역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운명에서의 거창한 력사적전환과정을 형상하는것으로 하여 수령형상장편소설의 인간관계는 방대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기본인물관계선밖에도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인물들사이에 호상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심화된다. 이러한 인물관계들은 산발적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형상과제를 가지면서도 총적으로는 수령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기본인물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로부터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수령과 운명적인 관계를 맺고 수령형상과제해명을 위한 형상의 몫을 수행하게 된다.

장편소설 《기폭의 붓》에서는 내각제1부수상 김일과 비날론박사 리승기, 야금기사 강운석, 보건상 겸 정부병원 원장 리락순, 백화점판매원 유설랑, 고운탄광 탄부 독고명일, 보건성 제1부상 한응섭을 비롯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방불하게 보여주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모든 인물들은 조롱우, 유숙근, 유진홍 이 세명의 기본인물들과 생활적, 운명적인연을 맺고 그들의 운명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기본인물들이 안고있는 인간문제들을 심화시킨다. 전체적으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지식인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한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칭송의 화폭을 펼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자기의 고유하면서도 심각한 운명적문제를 안고있는 인물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운명적이기도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격동적인 생활의 흐름속에서 맞이하는 성격발전의 굴곡과 전환과정은 이 나라 지식인들모두의 운명적전환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위인상을 부각시키는 형상적바탕으로 되고있다.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은 다음으로 시대발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는데 있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우선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력사적시대의 발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사변과 사건이 기본형상대상으로 된다.

수령에 의한 새로운 시대의 탄생과 전진은 거창하고도 준엄한 력사적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부차적인 사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전환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사건을 기본형상대상으로 전개함으로써 수령형상장편소설은 력사적전진의 중심에 모셔진 수령의 위인상을 형상하게 되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혈통》(오현락, 2019)은 복잡다단했던 1960년대에 반당수정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건립과정이 기본사건선으로 전개되고있다.

반당수정주의자들이 《인민영웅탑》을 운운하며 혁명전통의 폭을 넓힌다 어쩌다 하면서 잡소리를 늘어놓고있을 때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의 건립과정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백두에 뿌리를 둔 조선혁명의 혈통을 이어나가는가 마는가 하는 운명적문제를 안고있는 사건으로 첨예하게 전개된다.

보천보전투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건립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된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공사는 여전히 앉아뭉개고있는 상태이다. 당시 기념비를 그 무슨 《인민영웅탑》으로 건립하겠다는 나쁜놈들은 뒤에 돌아앉아서 못된 꿈을 꾸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청사안에 흐리터분한 공기가 배회하고있음을 간파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념비건립과 관련하여 조성된 사태의 본질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신다.

그 무슨 《혁명전통의 폭》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음으로양으로 대기념비건설을 방해하는 반당수정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은 궁극에 가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말살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앞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세계는 조선혁명의 혈통을 지켜나가는 문제, 조선혁명의 운명에 관한 심오한 사색의 세계에로 더욱 승화된다.

조선혁명이 피를 바쳐 세대와 세대를 이어 지켜야 할 뿌리는 무엇이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잔뿌리마저 송두리채 뽑아버려야 할것은 무엇인가. 이 길이 엄혹하고 준엄할수 있지만 자신께서 개척하셔야 할 길, 자신께서만이 책임질수 있는 력사의 과제라는것을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찬연히 빛내이며 백두의 혈통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혈통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를 체현한 세상에 유일무이한 혁명전통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신다.

이처럼 작품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이 일떠서는 실무적인 과정만을 보여주지 않았다. 바로 그 나날에 백두의 혈통을 이어가실분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 한분뿐이시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간직되었음을 예술적으로 확증한 여기에 작품이 거둔 가장 큰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또한 해당 시대의 발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을 형상적바탕으로 수령의 비범한 위인상의 발현과정을 축으로 하는 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장편소설에서 극성문제는 중요하게 제기된다.

방대한 생활을 일관하게 끌고나갈수 있는 극적건인력을 가질 때 작품이 제기한 주제사상을 원만하게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방대한 력사적사실자체를 라렬하는것이 아니라 부단한 굴곡과 전환과정으로 충만한 극적인 이야기를 조직하여 예술적건인력을 강화하고 시종일관 수령의 위인적품모에 대한 매혹과 찬탄의 예술적감흥을 조성한다.

시대의 발전과 전환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령의 위인상을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 기본사건의 전진은 첨예한 극성을 띠게 된다.

장편소설 《혈통》에서 조선혁명의 운명적인 기로에서 백두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단코 말아안으신 력사적사명은 작품의 극을 조성하는 계기로 되는 동시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첨예하고도 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될수 있게 한 형상적기초로 되었다.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책임감을 절감하시고 모진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는 투쟁에 결연히 나서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백두산악과도 같은 위인상은 전반이야기에 대한 강한 극적기대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백두의 혈통을 우리 혁명의 영원무궁한 초석으로 굳건히 다져나가시는 장군님의 강인담대한 의지와 탁월한 령도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을 전반이야기의 극적인 전환과정속에서 펼쳐보일수 있게 한 기초로 되었다.

하여 작품은 곡절많았던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건설과정을 극적인 전환과 굴곡이 두드러지는 이야기의 발전속에서 보여주면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지나온 력사적사변을 전하는 기념비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사상의 탑, 신념의 탑으로 거연히 일떠세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감명깊게 형상한 성과작으로 될수 있었다.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은 다음으로 수령의 령도밑에 거창한 전변을 맞이하는 해당 시대의 전모를 방불하게 보여주는 생활화폭을 펼친다는데 있다.

생활묘사의 풍만성, 다양성은 장편소설의 고유한 매력이다. 생활을 폭넓게 그릴수 있는것으로 하여 장편소설을 일명 《생활의 바다》라고도 하는것이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는 시대의 어느 한 단면이나 개별적인 한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 시대전반을 포괄하는 거대한 생활화폭이 펼쳐진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우선 수령을 모신것으로 하여 격변하는 생활의 흐름과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이한 인물들의 운명적인 전환과 비약이 비껴 한마디로 말하여 해당 시대의 전모가 비껴 풍부한 생활화폭을 펼친다. 이것은 수령형상장편소설만이 가질수 있는 형상적가능성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기폭의 붓》에서 당시의 시대상은 위대한 수령님과 운명적인연을 맺고있는 세 인물—조룡우, 유숙근, 유진홍의 구체적인 성격발전과 운명전환과정을 포괄하는 심오하면서도 풍부한 생활화폭속에서 폭넓게 펼쳐지고있다.

야금전문가 조룡우는 6천t프레스제작을 위한 협동주조방법을 연구할데 대한 과업을 받아안은 자리에서 자기 힘에 부치는 과제라고, 우랄의 야금전문가를 한명 데려오는것이 어떤가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리는 인물이다.

6천t프레스제작을 위한 협동주조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안겨주시여 지난날 사대와 교조병에 물젖었던 조룡우가 우리의 힘으로 6천t프레스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과정이다. 하기에 그는 협동주조가 성공한 자리에서 《정녕 수령님은 저의 재생의 은인이십니까!》라고 뜨거운 격정을 터친다.

조룡우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통성로동계급과 발걸음을 맞추기까지의 곡절많은 성격발전과정은 선진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던 6천t프레스를 우리 힘으로 제작해낸 1960년대의 영웅신화창조과정에 대한 시대적인 화폭속에서 부각되었다.

유숙근의 운명전환과정도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폭넓은 전개속에서 이루어지고있다.

홍역예방약개발과제를 맡아안고 수년간 고심하던 유숙근은 사대와 교조에 물젖은 한 응섭제1부상의 집요한 방해로 하여 합동검열조의 검열마당에까지 나서게 된다.

그의 마음속아픔을 헤아려주시고 전쟁시기 행불자로 되어있던 남편의 소식도 알려주시며 예방약개발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마카루스 레루스종 원숭이 40마리를 웰남의 호지명주석에게 친서까지 보내여 해결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유숙근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의 절정에서 로력영웅, 박사의 영예를 지니게 된다. 그의 이러한 운명전환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속에서 온갖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당시의 시대상속에서 감명깊은 인간학적화폭으로 펼쳐보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합흥의학대학 강좌장 유진홍은 일제시대에 배운 의학교육을 향수처럼 못 잊어하며 우리 당의 교육정책에 따라서지 못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인물이다.

그가 심각한 사상전환과정을 거쳐 스무명의 의사들이 모두 암이라고 진단했던 김일동지의 병이 암이 아니라는 확고한 진단을 내리게 되고 김일동지를 완쾌시켜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게 되는 과정은 낡은 사상잔재에 물젖어있던 지식인들이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주체의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한 진정한 과학자, 참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던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된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또한 인물들의 운명전환과정을 특색있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세부형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생동한 시대적화폭을 창조한다.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력사적시대에 대한 폭넓은 형상은 구체적인 생활의 단면들에서 발현되는 수령의 위인적품모에 대한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을 통하여서도 실현된다. 생활의 구체적인 단면들에서 발현되는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생동하게 그리는 문제는 전체적인 형상의 질적인 높이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요소로 된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 세부묘사는 수령의 위인적품모의 본질이 비껴있고 그것이 특징적으로 부각된 생활단면들에 대한 묘사이다. 일반적인 생활단면이 아니라 그 본질이 체현된 생활의 전모에 대한 폭넓은 현상을 안겨줄수 있는 세부야말로 시대상을 특색있고도 깊이있게 펼쳐보일수 있는것이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는 수령의 위인상이 특징적으로, 본질적으로 비껴있는 생활단면, 수령에 의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전환의 본질이 비껴있는 생활단면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력점을 찍어 그려냄으로써 풍만하고도 생동한 시대상을 창조한다.

장편소설 《기폭의 붓》에 형상된 의학박사 유진홍의 청진기세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성격발전이 집약적으로 비친 특색있는 세부이다.

유진홍에게는 애용하는 《꿀동》이 있다. 왜정때 일본 규슈에서 공부하던 초기 숙식비를 절약해서 산 청진기며 타진망치 같은것들인데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낡은 설비들이다. 청진기 진동부 같은것은 상아재질인데 누렇게 변색한데다 두어곳 터갈라지기까지 해서 길가에 놓아두면 누가 차버리고 집어가지 않을 정도로 되었다. 함흥에 그런 형식의 청진기를 쓰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진홍이다. 그래서 사상투쟁회의때 누군가는 유진홍의 왜나라의학교육에 대한 환상은 그가 쓰고있는 낡은 의료도와 정비례한다는 비판까지 했었다.

치료를 받는 파정에 김일이 그 누런 청진기가 황아장수의 고불통같다고, 시골의원같다고 버리라고 했지만 그는 정이 든것들과 헤어지기 아쉬워 좀더 쓰다가 보자고, 1부수상동지도 리해해줄것이라고 자체위안한다.

김일의 치료정형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유진홍의 위생복주머니에 있는 청진기를 보시고 낡은것 같다고 리락순원장에게 교시하신다. 리락순이 그 청진기가 왜정시기 규슈에서 대학을 다닐 때 산것인데 청진기만이 아니라 그가 쓰는 핀셋요, 타진망치요 하는것들도 전부 그 시절의 고물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렇다면 마침이라고, 의료기구공장에서 아주 질이 좋은 의료기구들이 나온다는데 새 의료기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자고 교시하신다. 그러시면서 의료기구공장 지배인에게 의료기구일식을 정성을 들여 잘 만들어주리라 믿는다고 친히 편지를 쓰신다. 다 만들었다고 연락이 오거든 가져다 유진홍동무에게 전달하고 값은 중앙은행에 가서 행표결제를 하라고, 중앙은행에 자신의 저작원고료가 저금되어있으니 처리해줄것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린다. 그 사랑이 깃든 의료기구일식, 하나의 수술장에 차려놓아도 부족할것이 없는 의료기구를 전달하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1부수상동지의 병치료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기념으로 주시는것이라는 리락순의 말을 전해 듣고 유진홍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 의료기구들을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로 느끼며 당의 보건정책관철에 백배의 노력을 기울일 맹세를 삼가 드린다.

이처럼 장편소설 《기폭의 붓》에 펼쳐진 모든 화폭들은 지난날 사대의 수령에 깊숙이 빠져 대국들에 굴종만 하면서 살아온 봉건사대부들의 구차스런 행태에 분을 금치 못하면서 다시 그 길을 걸을번 했던 우리 지식인들의 넋에 주체의 신념을 세워주시고 조선의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붓을 우리의 붉은 당기가 영원히 감싸안고 휘날릴 조선혁명의 붓으로, 조선로동당의 붓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정녕 우리 지식인들모두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운명의 해님이시라는 진리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인상에 대한 송가적화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수령의 비범한 위인상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칭송의 메아리가 시대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풍만한 생활화폭속에서 절절하면서도 드높이 울려나오는것으로 하여 수령형

상장편소설은 명실공히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중의 명작으로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릴 수 있는 것이다.

3. 결 론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로정에서 눈부신 기적과 전진이 이룩되고있는 조국번영의 휘황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자랑찬 진군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범하고도 특출한 위인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생동하게 형상한 수령형상장편소설의 출현을 고대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단호히 쳐갈기시며 나라의 국력과 인민의 존엄을 누리에 떨쳐가고계시는 희세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진실하고도 생동하게 형상한 수령형상장편소설을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창작하는것은 우리 시대 작가들의 숭고한 사명으로 된다.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보다 심화되어야 한다.

수령의 비범하고도 탁월한 위인상을 가장 폭넓고도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는 수령형상장편소설의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한 명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위인상을 새롭고도 진실하게 형상한 수령형상장편소설을 더 많이 창작할 때 위대한 **김정은**시대 문단의 절정은 가장 빛나게 장식되게 될것이다.

실마리어 수령형상장편소설, 위인상, 업적, 품모